

한국어 교육과 방언, 방언 악센트*

하신영**

|| 차례 ||

- I. 서론
- II. 개념 정의: 방언, 사투리, 악센트
- III.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방언
- IV. 외국의 외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방언
- V. 결론: 한국어 교육에서의 방언과 방언 악센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방언의 개념을 정리하고 실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방언은 문화 현상의 하나로서 소개되는 소재로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교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달리 연구 논문에서는 특수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방언 연구가 문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다. 일반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육에서는 방언 악센트를 다루어야 한다. 악센트란 방언의 특징 중에서 분절음의 발음, 음운규칙과 더불어 방언 특유의 억양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외국어의 언어 능력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어 교육에서도 듣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악센트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함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제2언어 교육, 방언, 악센트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8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I. 서론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방언’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흥미로운 문화 현상의 하나인 사투리를 재미있는 소재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주민이나 노동자들에게 실용적인 관점의 지역어로서 제시되고 있는가? 아니면 표준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학습자들에게 되도록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는 억양쯤으로 여겨지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방언, 사투리, 지역어, 억양 등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방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방언’과 ‘악센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 연구 상황을 분석한 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외국의 제2언어 교육에서 방언을 다루는 입장도 참고하게 될 것이다.

II, 개념 정의: 방언, 사투리, 악센트

방언은 그 자체로 독립된 언어체계를 가지는 한 언어의 분화체이다.(최명옥, 2015:58) 예를 들어 중부 방언이라는 말은 한국어라는 한 언어의 분화체로서 중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체계의 전반을 일컫는다. 이때의 언어체계는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소리의 특징(음운론), 문장과 단어를 만들어 내는 규칙(형태론, 통사론), 사용되는 단어의 형태와 의미의 특징(어휘론, 의미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부산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은 부산 방언이라고 이를 것이며 이때에도 그 언어체계 전반을 가리키게 된다.¹⁾

방언과 구분되어야 할 용어가 사투리이다. ‘사투리’는 표준어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²⁾ ‘dialect’의 번역어로서 ‘방언’과 ‘사투리’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방언’과 ‘사투리’는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다. 사투리는 표준어가 아닌 것, 즉 해당 언어체계의 일부로서 특정 지방에서만 사용되는 말을 가리킨다.(정승철, 2013:23) ‘밥’이라는 단어는 표준어에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남 방언에서도 쓰이는 단어이다. 그러나 밥을 담은 용기 ‘그릇’을 ‘그룩’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동남 방언의 특징이며 표준어의 입장에서 ‘그룩’은 사투리로 인식된다. 표준어와 방언은 사용하는 어휘 형태에서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음소체계, 통사 규칙과 담화 규칙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건 사투리잖아’라고 할 때에는 형태의 차이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정승철(2013)에서 명확히 보여준 것과 같이 사투리는 표준어의 여집합이며 방언의 부분집합이므로 방언과 사투리는 그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쓰는 언어체계에 전반 대해서 말할 때는 ‘방언’ 혹은 ‘○○ 지역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으며 표준어와는 다르게 쓰이는 특정한 어휘를 가리킬 때에는 ‘사투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을 것이

-
- 1) 방언권을 나누고 비교 분석하는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지역어’와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방언구획론에 의해 밝혀진 지역사회의 언어를 ‘방언’이라 하고, 임의적으로 정해진 지역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지역어’라고 구분한다.(최명옥, 2015) 본 논의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물론 지역적인 분화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분화체로서의 사회 방언도 방언의 하위개념에 포함된다.
 - 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방언의 두 번째 의미를 사투리의 유의어로 등재하고 있지만 방언의 기본 의미를 사투리로 해석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 사투리 -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 방언 - 1.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2.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사투리.

다. 영어의 ‘방언(dialect)’에 해당하는 개념이 한국어에서는 ‘방언’과 ‘사투리’ 두 가지로 세분화되어 인식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학에서는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 바로 ‘악센트(accent)’이다.

영어학에서는 악센트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며 특히 방언의 개념과 구분되어 인식된다.

(1) 악센트의 개념

악센트는 지역적/사회적 공간에 따라 분포된 언어의 운율적, 분절음적인 특성들의 느슨한 묶음이다.

Accents are loose bundles of prosodic and segmental features distributed over geographic and/or social space(Lippi-Green, 1997:42)³⁾

악센트란 음성학적이고 음운론적인 속성에 따른 언어변이형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방언(dialect)과는 구분되는데 방언은 음성, 음운론적 속성뿐만 아니라 어휘, 통사적인 속성도 고려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A term used, especially by British linguists, to identify varieties of a language with respect only to phonetic and phonological properties of that variety. Accent is often distinguished from dialect, which is said to denote, not just phonetic and phonological properties of a given variety, but also differences in vocabulary and syntax.(Car, 2008:8-9)

위의 정의들을 보면 악센트는 방언의 특징 중에서 음성, 음운론적 특징을 일컫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때의 음운론적 특징은 분절음적인 요소와 초분절음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단어의 강세, 문장의 억양 등 초분절음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자음과 모음의 발음 특징과 같은 분절음적인 요소

3) 김명숙(2008)에서 재인용.

도 모두 악센트로 분류된다.

이러한 의미의 ‘악센트’ 개념은 국내의 외국어 교육 연구 분야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악센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⁴⁾ 그러나 외국어 교육 쪽이 아닌 한국어 교육 쪽에서는 악센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악센트의 개념이나 용어의 번역에 대해서도 합의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어학에서 악센트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잘 논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찾을 수 있다. 먼저 이제껏 ‘악센트’라는 용어를 서구권에서와는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해 왔다. 한국어 언어학에서는 ‘악센트’ 개념을 ‘강약’ 혹은 ‘고저’로 이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장의 어느 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발음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악센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단어의 의미 변별에 관여하지 않는 이런 유형의 악센트는 학문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이진호 2016, 278-279) 둘째로 표준어 중심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언의 특성 중의 하나인 악센트에 대한 논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악센트가 인식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비교 대상 언어가 필요하다. 기준이 되는 발음이 존재하고 그와 차이가 나는 발음 특징을 가진 대상이 있어야 이를 특정한 악센트라고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내의 다양한 악센트는 방언의 한 특징

4) 한국인이 선호하는 영어 악센트에 대한 연구(김명숙, 2008), 영어의 다양한 악센트에 대한 한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도 비교 연구(Yoo H., 2007) 등 영어의 악센트에 대한 인식 연구로 시작하여 국가 주관 영어 시험에 영국 영어 악센트를 포함시키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실험 연구(Suh Keong Kwon, 2019)까지 악센트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모두 외국어인 영어의 악센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연구에서도 외국인 악센트 인지에 대한 실험 연구(홍민경, 2018)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외국인 악센트’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며 한국어 자체의 악센트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학적인 인식을 배제한 표준어 중심의 연구에서는 악센트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 논의에서 관심을 가지는 방언적 특성으로서의 ‘악센트’는 한국어학에서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1)에서 살펴본 영어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어에 적용을 해보자면 ① 문장 전체의 억양 특징, ② 분절음의 발음 특징, ③ 음운 규칙의 특징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표준 한국어로 이루어진 다음 예문(2)를 표준어 악센트, 동남 방언 악센트, 서남 방언 악센트로 발음한다고 해 보자. 분절음 발음의 특징, 문장 억양의 특징, 적용되는 음운 규칙의 특징, 이 세 가지 특성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⁵⁾

(2) 어른들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표준어와 동남, 서남 방언의 문장 억양의 특징이 다르다. 동일한 음절의 연쇄를 발음하더라도 방언별로 문장 전체에 걸리는 특정한

5) 표준 한국어란 표준어의 어휘와 문법을 통해 표현되는 한국어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표준어라 할 때에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되는 것은 전제로 하나 본고는 표준 한국어를 다양한 방언 악센트로 발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지역 방언 악센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악센트로도(공식적인 발표 상황의 악센트, 아이들과 대화할 때의 악센트 등) 얼마든지 표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표준 발음법도 악센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Wardhaugh(1986:43)의 ‘표준 영어’(Standard English)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Standard English, for example, is spoken in variety of accents, often with clear regional and social associations: there are accents associated with North America, Singapore but many people who live in such places show remarkable uniformity to one another in their grammar and vocabulary because they speak Standard English.

역양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느낀다. 다음으로 각 방언별로 분절음의 발음에도 차이가 난다.⁶⁾ 경상 방언의 경우 ‘어른들은’이라는 음절의 중성을 이루는 모음 4개는 동일한 모음으로 발음되며 음성적으로도 표준어나 서남 방언의 ‘어’ 또는 ‘으’와 차이가 난다. 또한 음운 규칙의 적용도 악센트의 차이를 구성한다. ‘못 하는’의 발음에 있어서 서남 방언의 경우 역행적 유기음화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 발음의 [모타는]과 달리 [모다는]으로 발음되게 된다. 어휘나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동일한 표준 한국어 예문(2)을 발음하더라도 각 방언의 발음 특성으로 인해 방언적 차이가 드러나게 될 때 이를 방언 악센트라고 하는 것이다.⁷⁾

본고는 한국어 교육의 연구 대상으로서 이 악센트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라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새로운 악센트를 지닌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모어 화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악센트를 들으며 언어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 질 수 있지만 제2언어 학습자들은 익숙한 악센트의 범위가 훨씬 좁을 수밖에 없고 이는 듣기 이해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악센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되고 있는 한국어는 표준 한국어이다. 그러나 그 표준 한국어는 표준어 악센트로 발음될 수도 있고 방언 악센트로 발음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두 표준어 악센트로

6) 여기서의 동남 방언, 서남 방언의 악센트 차이는 최명옥(2015)에서 분류한 대방언권의 음소 목록과 음운 규칙에 따라 적용해 본 것이다.

7) 악센트를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음운론적으로만 접근하면 동일한 음소가 방언별로 다르게 발음되는 음성적 특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조나 강세, 장단과 같은 초분절음의 특성과 달리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언 특유의 문장 억양은 일반적인 음운론 논의에서는 다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부 방언권이 아닌 지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당연히 각 지역의 악센트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설사 한국어 교사들이 최대한 표준어 악센트로 발음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들은 당장 교실 밖에 나가면 방언 악센트로 들려오는 한국어와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 방언 악센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적어도 교사는 표준어 악센트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다. 본고는 애써 외면해 왔던 방언 악센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악센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보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악센트’의 적당한 번역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국어 음운론에서 ‘말투’, ‘음조’, ‘억양’, ‘강세’ 등으로 번역되는 악센트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학의 일반적인 ‘악센트’의 정의에 해당되는 번역어는 ‘말투’ 정도인데 이러한 용법으로서의 ‘말투’는 언어학적으로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말투’는 ‘style’의 번역어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정한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고 악센트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방언, 사투리, 악센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방언- 한 언어의 분화체로서 해당 언어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말
- 사투리- 표준어가 아닌 것, 즉 해당 언어체계의 일부로서 특정 지방에서만 사용되는 말
- 악센트- 방언의 특징 중에서 음성, 음운론적 특징의 총체적 묶음(분절음의 발음, 문장의 억양, 음운 규칙)

Ⅲ.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방언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방언과 악센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 현황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관 교재에서 방언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의 논문에서는 또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어 교재 속의 방언: 문화 소재로서의 방언

교재에 반영된 방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대학 기관에서 발행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한국어 교재 5종을 선정하여 각 교재에 방언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각 교재의 1권부터 6권까지에 포함된 모든 대화문과 예문, 읽기자료와 듣기 스크립트를 모은 말뭉치에서 ‘방언’, ‘사투리’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관련하여 악센트(억양, 말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관찰하였다. 대상이 된 교재는 다섯 가지이며 논의의 편의상 <가>, <나>, <다>, <라>, <마> 부르기로 한다.⁸⁾

각 교재별로 사용된 단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8) <가>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1~6권, 2008~201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교보문고.

<나> 연세 한국어 1~6권, 201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출판부.

<다> 이화 한국어 1~6권, 2010,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라> New 서강 한국어 1~6권, 2008,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하우출판사.

<마> 서울대 한국어 1~6권, 2012~2015,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TWOPONDS.

| 교재 | 급/제시 영역 | 사용된 용어 | 사용된 의미 |
|----|-------------|---------------|-----------|
| 가 | 6급 대화문 | 방언 | 방언 |
| | | 억양이나 발음 | 악센트 |
| 나 | 3급 듣기 자료 | 사투리 | 사투리 |
| | | 억양 | 악센트 |
| 다 | 3급 문화 | 사투리 | 방언 |
| | | 억양 | 악센트 |
| | 5급 읽기 자료 | 사투리 | 방언 |
| 라 | 6급 쓰기 자료 | 사투리 | 방언 |
| | | 없음 | |
| 마 | 4급 듣기 자료 | 사투리 억양과 말투 | 방언 악센트 |
| | | 6급 읽기 자료 | 방언 |

〈표1〉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방언’의 사용 양상

교재 〈가〉에서는 6급 대화문에서 정확히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악센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억양이나 발음’ 사용하고 있다.

(3) 〈가〉 6급

니콜라: 어휘나 문법이 다른 것은 서로 배우면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억양이나 발음은 그 차이를 좁히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남한 말에 익숙한 저로서는 북한 뉴스를 들으면 딴 나라 말 같거든요. 원래 남북한 언어 차이가 그렇게 심했어요?

교수: 물론 지역 방언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분단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차이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지.

교재 <나>에서는 3급 듣기 자료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억양’이라는 말로 악센트의 특징을 표현하며 ‘사투리’도 많이 쓴다는 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악센트와 사투리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나> 3급

영수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부산 억양이 느껴지고 사투리도 많이 씁니다.

교재 <다>에서는 세 급에 걸쳐 방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3급, 5급, 6급 모두에서 ‘사투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방언을 지칭하고 있다. (5)에서는 ‘특유의 억양’이라는 말로 악센트의 단면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예문(6), (7)에서는 악센트에 대한 언급은 없고 표준어와 다른 방언의 특징을 부각하는 내용으로 ‘사투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다> 3급

그것은 지역마다 그 지역 특유의 억양과 단어를 사용하는 사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6) <다> 5급

이렇게 차이가 생긴 말을 ‘사투리’라고 하는데 사전에서는 이것을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7) <다> 6급

부산이 배경인 만큼 부산 사투리를 통해 서울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인 면과 그 지역만의 특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영화를 보는 재미를 더해 준다.

교재 <라>에서는 방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재 <마>에서는 4급과 6급에서 관련 내용이 나타나는데, 4급에서는 ‘사투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방언을 지칭하고 6급에서는 정확히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교재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예문 (8)에서는 ‘억양과 말투’라는 용어로 악센트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8) <마> 4급

저는 오늘 ‘한국의 사투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사투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여러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출신 지역별로 억양과 말투, 사용하는 단어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보통 “빨리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경상도 사람들은 “퍼뜩 오이소.”라고 하고 전라도에서는 “빨랑 오랑게요.”라고 하고 충청도에서는 “어서 와유.”라고 말합니다.

(9) <마> 6급

...한국어에는 표준어의 바탕이 되는 서울말 외에도 지역마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방언들이 존재한다.

교재 전체적으로 ‘방언’은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한두 번 언급되는 문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표준 한국어만을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방언이란 흥미로운 소재임에 분명하다. 한국에 얼마나 다양한 방언이 있고 그 방언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부각하면서 흥미로운 문화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거나 배워야 할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용어 사용의 측면에서는 방언과 사투리라는 용어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재 <가>와 교재 <마> 일부에서는 정확히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6급 교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급 수준의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용어의 사용을 정확히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교재들에서는 ‘사투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방언을 지시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되는 양상을 보면 ‘방언’과 ‘사투리’의 정확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어휘적 차이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문 (8)의 후반부에 드러나는 것처럼 사용되는 어휘나 문법 형태의 차이를 방언의 차이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악센트에 대한 언급은 부차적인 기술로 나타난다. 발음, 억양, 말투 등의 용어로 악센트의 차이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방언 특징의 일부로서 언급할 뿐 실제로 그러한 억양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악센트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한국어가 다양한 악센트로 발음될 수 있다는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교재 분석 결과 어느 언어에나 존재하는 방언이라는 언어 현상을 한국의 문화 중 하나로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급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경우에도 내용 지식으로 제시되는 것 이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방언을 배워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표준어와 상당히 다른 여러 모양의 사투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한국어가 다양한 악센트로 발음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반영될 수 없다.

2.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의 방언: 특수목적 학습자를 위한 지역어

한국어 교재에 드러난 방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에 반해 한국어 교육 연구 논문들에서 다루고 있는 방언은 놀랍게도 매우 학술적이다. 한국어 교육계에서 방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방언 연구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먼저 대부분의 방언 연구가 특수목적 학습자를 위한 방언 연구라는 점이다. 우창현(2009), 박경래(2010)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한 이후, 대부분의 방언 한국어 연구는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최근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한국어 교육이 시행되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 특수목적 학습자들에 대한 방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다.

두 번째 특징은 표준어와 차이를 보이는 방언의 문법 형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상대 높임법(우창현, 2012; 박지은, 2018), 시제 선어말어미(우창현, 2011), 의문형 어미(권화숙, 2017; 차윤정, 2018) 등을 표준어와 비교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언이란 음운, 문법, 어휘를 포괄하는 언어체계 전반을 말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문법 부분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도 발음 교육과 어휘 교육에 비해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몇 안 되기는 하지만 방언의 음운 규칙(하신영, 2016), 방언의 기초 어휘(한지현, 2013)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법 형태 등에 대한 비교 연구는 학습자들에게 방언의 언어체계를 가르쳐서 방언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언 체계 전체에 대한 교수가 전체가 되므로 표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발음, 문법, 어휘 등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특수목적 학습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연구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구 분야로 정착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방언 한국어 연구 분야의 성과가 일반 한국어 교육 연구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교육 대상과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언어 체계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방언 악센트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 보면 일반 한국어 교육에서도 얼마든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교육 내용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표준 한국어를 교육하는 일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악센트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표준 한국어를 가르치지만 그 지역의 악센트로 발음하여 의사소통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방언 한국어 연구와 별개로 방언 악센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일반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⁹⁾ 다음 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외국어 교육에서 방언 악센트를 다루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여 본다.

IV. 외국의 외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방언

영어의 제2언어 교육에서는 일찍이 악센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사회 방언 악센트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듣기 평가 자료에 반영되는 방언 악센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Eisenstein & Berkowitz(1981)은 표준 악센트를 사용한 영어와 뉴욕의 노동자 계층 악센트를 비교하여 L2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했고 Anderson-Hsieh & Koehler(1988)에서는 악센트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청자의 듣

9) 한국어의 방언 악센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학습 지역의 한국어 억양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정명숙·조위수(2010)에서 악센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 이해가 더 낮아짐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분야에서도 악센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Ockey & French(2016)는 토플 듣기 평가에서 사용되는 악센트를 세분화하여 1종의 미국 악센트, 4종의 영국 악센트, 4종의 호주 악센트를 사용하여 듣기 실험을 하였다. 실험 연구 결과 악센트의 강도와 친숙도에 따라 내용 이해에 차이가 남을 확인하고 실제 학습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여러 종류의 악센트를 반영하여 시험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악센트는 듣기 이해에서 잠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인이다.¹⁰⁾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의 역사가 길고 평가 체계가 갖추어진 언어권에서는 듣기 평가에 악센트를 반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외국어 듣기 평가 시험에서 악센트에 대해 어떠한 고려를 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본다. 그 기준에 따라 한국어 평가 시험에 악센트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참고하게 될 것이다.

1. 유럽의 언어 평가 기준

유럽의 언어 교육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교육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 교육 기준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에 따라 각 언어권별로 교육 급수를 정하고, 평가 시험의 규범을 확정한다. 프랑스어 시험인 DALF, 독일어 시험인 TestDaF 등 유럽어 평가 시험은 기본적으로 CEFR의 기준에 따라 급을 평가한다. 방언, 악센트와 관련된 기준은 듣기 평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¹⁾

10) Buck(2001)에서는 청자가 낮은 악센트를 듣는 경우에 당황하여 전체 이해 과정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센트가 이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1) 관련 기준은 다음 프랑스어 시험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다.

초급 단계인 A1, A2 단계의 듣기 기준에는 발화의 속도와 발음의 명확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B1 단계부터는 방언이나 악센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10) CEFR의 급별 듣기 능력 기준

B1

Can understand straightforward factual information about common everyday or job related topics, identifying both general messages and specific details, provided speech is clearly articulated in a generally familiar accent.

Can generally follow the main points of extended discussion around him/her, provided speech is clearly articulated in standard dialect.

B2

Can understand standard spoken language, live or broadcast, on both familiar and unfamiliar topics normally encountered in personal, social, academic or vocational life.

Can understand the main ideas of propositionally and linguistically complex speech on both concrete and abstract topics delivered in a standard dialect, including technical discussions in his/her field of specialisation.

C1

Can understand enough to follow extended speech on abstract and complex topics beyond his/her own field, though he/she may need to confirm occasional details, especially if the accent is unfamiliar.

C2

Has n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y kind of spoken language.

whether live or broadcast, delivered at fast native speed.
Can understand a wide range of recorded and broadcast audio material, including some non-standard usage.

B1 단계는 ‘일반적으로 친숙한 악센트로 명확히 발음된’ 발화를 이해하며, ‘표준 방언으로 명확히 발음된’ 발화의 핵심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B2 단계에서도 ‘표준 구어’, ‘표준 방언’으로 발화된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고급 단계인 C1부터는 방언과 악센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C1 단계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악센트일 경우 세부 사상을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여 표준 악센트가 아닌 다른 악센트로 행해진 발화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C2 단계는 ‘어떠한 종류의 구어’이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며 ‘비표준적인 사용법’도 이해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표준적인 언어 외에 다양한 방언과 악센트로 발화된 경우에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듣기의 능력을 단순히 이해 가능한 주제나 어휘의 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의 속도, 발음의 명확성, 악센트의 종류, 주변 소음의 영향 등 기본 의미 외의 음성, 음향적 조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국의 언어 평가 기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에도 방언과 악센트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드러난다. 미국외국어교육위원회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발표한 언어숙달도 지침의 5단계 중 상위 2개 단계 듣기 능력 부분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¹²⁾

(11) ACTFL의 급별 듣기 능력 기준

Superior

At the Superior level, listeners are able to understand speech in a standard dialect on a wide range of familiar and less familiar topics.

Distinguished

Distinguished-level listeners comprehend language from within the cultural framework and are able to understand a speaker's use of nuance and subtlety. However, they may still have difficulty fully understanding certain dialects and nonstandard varieties of the language.

고급 단계(Superior)의 학습자는 '표준 방언'으로 발화된 것은 어떠한 주제이든 듣고 이해가능한 수준이며 최고급 단계(Distinguished)의 학습자는 화자의 뉘앙스까지 이해할 수 있으나 '특정 방언이나 비표준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유럽의 평가 기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외국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방언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시행되고 있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인 토익 시험과 토폴 시험에도 반영되어 있다. 토익 시험의 출제 기준에는 듣기 평가에서 사용되는 악센트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12) 관련 기준은 ACRFL 홈페이지에서 내용 발췌하였다.

<https://www.actfl.org/publications/guidelines-and-manuals/actfl-proficiency-guidelines-2012/english/listening>

(12) TOEIC의 출제 기준¹³⁾

- 어휘/문법/관용어 중에서 미국 영어에만 쓰이는 특정한 것은 피한다.
- 특정 문화에만 해당되거나 일부 문화권의 응시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한다.
- 여러 나라 사람의 이름을 고르게 등장시킨다.
- 특정 직업 분야에만 해당되는 상황은 피한다.
- 다양한 문화와 성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유의한다.
- 듣기 평가에서는 다양한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발음 및 악센트가 출제된다.

(12)의 출제 기준 중 미국 영어에만 쓰이는 특정한 것은 피한다는 기준이 있다. 표준 영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나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단어, 영국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라 할 만한 것은 제외하겠다는 뜻이다.¹⁴⁾ 미국에서 평가하는 시험이기는 하나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어 어휘나 표현을 표준 영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센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악센트를 반영한다고 기준을 삼고 있다. 어느 나라의 악센트도 아닌 표준 악센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듣기 평가에서는 실제 사용되는 악센트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토플의 듣기 평가 기준에서도 악센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13) TOEIC의 출제 기준¹⁵⁾

The Listening and Speaking sections of the TOEFL iBT test include other native-speaker English accents in addition to

13) <http://exam.ybmnet.co.kr/toEIC/info/area.asp>

14)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 영어는 우리나라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악센트는 다르지만 같은 문법과 어휘를 공유하는 개념인 Wardhaugh(1986:43)의 ‘표준 영어’(Standard English)를 말한다.

15) <https://www.ets.org/toefl/ibt/about/content/>

accents from North America. You may hear accents from the U.K., New Zealand or Australia.

토플도 토익과 마찬가지로 미국 외에 영국, 뉴질랜드, 호주의 악센트로 듣기, 말하기 평가가 이루어진다.

유럽과 미국의 언어 평가 기준을 살펴본 결과 듣기 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방언과 악센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 방언이 아닌 다른 방언으로 발화된 듣기 자료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완벽한 지역 방언으로 발화된 것이고 하나는 방언 악센트로 발화된 것이다. 완벽한 지역 방언으로 발화된 것은 어휘나 문법, 발음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능력 시험에서 이러한 방언 능력을 평가할 수 없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토익의 출제 기준에 반영된 것과 같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 즉 방언 악센트로 발화된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 듣기 평가에서 평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내용의 이해 능력뿐만이 아니라 소리를 들어내는 능력도 포함된다. (13)의 토플 평가 기준의 하반부에서 언급하였듯이 표준 악센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언 악센트도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야 할 악센트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인 토익의 평가 기준에는 이러한 악센트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에 악센트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의 외국어 능력 평가 기준에서 보듯이 고급 단계의 듣기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악센트로 발음된 듣기 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방언 악센트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한국어 교육에서의 방언과 방언 악센트

결국 한국어 교육에서 방언을 다루는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언어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방언’과 한 방언의 말소리 특징을 가리키는 ‘방언 악센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분야의 방언 연구는 교육 대상과 교육 내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미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언어 전반, 즉 문법, 어휘, 발음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이다. 결혼이민자나 이주 노동자와 같은 특정한 학습자 집단이 대상일 될 수도 있고 표준 한국어를 배운 후 지역 방언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 학습자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개별 지역어 또는 방언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 적어도 방언으로 말하고 듣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지금까지의 방언 한국어 연구는 문법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 어휘와 발음 분야의 연구도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방언에 대한 연구가 더욱 이루어지고 그를 바탕으로 표준 한국어와 비교하여 교육에 적용해야 하므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분야이다.

이와 별개로 ‘악센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악센트에 대한 연구는 일반 목적 학습자를 위한 것으로 표준어의 악센트 특징에 대한 연구, 방언 악센트 특징에 대한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악센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대조언어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방언의 악센트는 어느 특정 지역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성과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적어도 두 지역어의 음성, 음소, 운소, 특징적인 문장 억양 등을 비교하여야 그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비교대조 방언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 한국어 교육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해 한국어의 다양한 방언 악센트의 특징이 드러나면 한국어 이해 능력을 높이는

도구로서 듣기 자료에 다양한 악센트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의 듣기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보면 토픽의 고급 수준 듣기 평가 기준에 방언 악센트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앞으로 고려해 볼만 한다.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표준어 발음으로 발화를 하는 사람은 없다. 교육기관에서 교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발음과 실제 발음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표준 한국어를 -어휘와 문법으로서- 사용하더라도 개인적인, 혹은 지역적인 특성으로서 드러나는 악센트로 인해 학습자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자연스러운 한국어의 방언 악센트를 반영하기 위해 적어도 교재의 듣기 자료나 공인된 인증 시험의 듣기 영역에서는 표준화된 성우의 발음뿐만 아니라 지역 방언의 악센트를 포함하는 듣기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권화숙,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안동방언의 ‘하십시오’체 의문형 어미 연구」, 『영주어문』제37집, 2017, pp.263-282.
- 김명숙, 「영어의 약센트」, 『영어학연구』제25집, 2008, pp.41-57.
- 박경래,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 고찰」, 『우리말글』제48집, 2010, pp.85-118.
- 박지은,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을 위한 전라북도 방언 문법 표현 연구:상대높임법 체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우창현,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방언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방언학』제9집, 2009, pp.103-141.
- 우창현, 「방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표현 비교-시제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인문연구』제63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p.29-53.
- 우창현, 「방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존대법 비교-표준어와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제8집 1호, 2012, pp.99-121.
- 이진호, 『국어 음운론 용어사전』, 역락, 2016, pp.278-279.
- 정명숙·조위수, 「학습 지역이 한국어 역량 습득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제36집, 우리어문화회, 2010, pp.327-355.
- 정승철, 『한국어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2013.
- 차운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산 지역 방언 의문형 어미의 교육 방안-‘가/-나’, ‘고/-노’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제53집, 우리말학회, 2018, pp.313-338.
- 최명옥, 『한국어의 방언』, 세창출판사, 2015.
- 하신영,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의 구성·발음 교육을 중심으로」, 『방언학』제23집, 2016, pp.183-203.
- 한지현,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을 위한 전남방언 어휘의 선정-조급어휘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제25집, 2013, pp.429-491.
- 홍민경, 「외국인 약센트 인지에 대한 분절음과 억양의 상대적 기여」, 『이중언어학』제72집, 2018, pp.341-499.
- Anderson-Hsieh, J., Koehler, K. The effect of foreign accent and speaking rate on native speaker comprehension. *Language Learning* 38, 1988, pp.516-613.

- Buck, G. *Assessing Liste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김지홍 옮김, 『듣기 평가』, 글로벌콘텐츠, 2013).
- Car, P. *A Glossary of Phonolog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8.
- Eisenstein, M. R., Berkowitz, D. The effect of phonological variation on adult learner comprehens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4, 1981, pp.75-80.
- Kwon, SK, The Impact a British Accent in a National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Is it Fair?,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8(3), 2019, pp.67-94.
- Ockey, G.J., French, R. From One to Multiple Accents on a Test fo L2 Listening Comprehension, *Applied Linguistics* 37(5), 2016, pp.693-715.
- Wardhaugh, R.,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1986, Basil Blackwell.
- Yoo, H. Comprehension of International Dialects of English by Korean EFL Students, *Korea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7(4), 2007, pp.477-499.

Abstract

About 'Dialect' and 'Accent'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Ha, Shin-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dialect' and 'accent' to be addressed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nd to confirm how they are actually addressed, and to suggest directions in moving forward.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 confirmed through the text that dialect is only treated as a material introduced as a cultural phenomenon. In contrast, research papers show that dialect research for special-purpose learners is proceeding mainly on grammar. Standard Korean education for general purpose should instead focus on dialectal accents. The accent includes the pronunciation of the segmental sounds, the phonological rules, and the typical intonations of dialects. In reference to the evaluation criteria of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also establish accent criteria to develop learners' listening ability.

Key Word: Korean language teaching, second language teaching, dialect, accent

하신영

소속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전자우편 : atdust@daum.net

이 논문은 2020년 02월 10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

